

[보도자료] 한국에서 뛰는 토트넘 경기 보고 싶다면,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2022. 7. 13.



- 오늘 저녁, 손흥민 선수 소속 토트넘 구단 초청한 ‘쿠팡플레이 시리즈’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생중계
- 멤버십 혜택 강화 위한 투자 일환 와우 멤버십 가입 회원들에게 스포츠 이벤트로 특별한 경험 선사

2022. 7. 13. 서울 - 쿠팡플레이가 금일 저녁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을 시작으로 토트넘 구단의 2개 경기를 모두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라이브로 중계한다.

‘쿠팡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은 오늘 13일 저녁 8시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국내 올스타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1차 친선경기를 갖는다. 이어서 16일 저녁 8시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스페인 프로구단 세비야 FC를 상대로 경기에 나선다. 두 번의 경기 모두 쿠팡 와우 회원을 위한 혜택인 만큼, 지상파 방송 중계 없이 오직 쿠팡플레이 웹사이트 및 앱을 통해서만 시청할 수 있다.

쿠팡플레이는 모바일·태블릿·PC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스마트TV에서도 접속할 수 있어 큰 TV 화면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다양한 환경에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도록 기존 삼성 및 LG 스마트TV 뿐 아니라 안드로이드TV에서도 스포츠 중계가 가능하게 업데이트됐다.

쿠팡은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는 티켓 역시 쿠팡플레이 웹사이트 및 앱 상에서 와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판매해, 토트넘 2개 경기를 쿠팡 와우 고객만을 위한 축구 축제로 만들었다. 국내에서 평소 쉽게 관람하기 힘든 빅게임인 만큼, 와우 회원들이 예매를 서둘러 전 좌석이 조기에 매진됐다.

토트넘은 국민 스포츠 스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프리미어리그(PL) 인기 구단이다. 쿠팡은 쿠팡 와우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토트넘 구단을 초청하고, 팀 K리그 및 세비야 FC와의 경기를 성사시킴으로써 ‘쿠팡플레이 시리즈’를 진행한다.

쿠팡플레이는 지난 11일 추첨을 통해 토트넘 구단 오픈 트레이닝에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들을 초청했으며, 일부 회원들에게는 토트넘 선수들과 직접 만나보는 팬미팅 기회까지 선사했다. 그 외 선수들과 경기장에 함께 입장하는 에스코트 키즈를 모집하는 이벤트를 진행해 와우 멤버 자녀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줄 예정이다.

한편 쿠팡은 지난 2019년 쿠팡 와우 멤버십을 론칭한 이후 지속적인 투자를 기반으로 멤버십 혜택을 늘려왔다. 와우 회원이라면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를 통해 영화, 드라마,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쿠팡플레이는 'SNL 코리아' '어느 날' 등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해, 최근엔 배우 수지 주연의 '안나'가 화제몰이 중이다. 앞으로 배우 신하균 주연의 시트콤 '유니콘', 국가대표 축구선수들의 월드컵 도전기 '국대: 로드 투 카타르'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